

# 노들

제 61호

2005 · 11

노들장애인야간학교 Nodl Popular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

# 바람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16-3 정림회관 교육관 3층 · 연락처 02)446-9101(늦은 6시~10시) · 발행인 박경석 · 편집인 이일찬 ·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nodl.or.kr> · E-mail [nodl@paran.com](mailto:nodl@paran.com)

열 세 번째 노들인의 밤!!!

준비하는 사람들도 기다리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겠지.

2005년 노들에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열세살 만큼 웃고 떠들어 봅시다.

# 열 세 번째 노들인의 밤

이렇게 준비 합니다.

이번주 일정

공 고

열세번째 노들인의 밤  
이름짓기

일 정

후원조직 \* 수익사업

모 집

연극  
수화  
영상  
전동댄스

2-37



하도까지 따라 내려갔다. 청계천 끝자락, 쓸모도 없어진 지하도는 박스로 덧대고 이불에 돌돌 말린 몸뚱이들이 들어 즐비했다. 도저히 쿿 구멍으로는 숨 쉴 엄두가 나지 않아 입으로 한 움큼 삼켜보니 목 구멍으로 울컥하고 토약질이 차받쳐온다.

나는 역한 냄새와 한없이 공색한 몸뚱이의 난장을 보고 잠시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원래 빨간색이었을 진데 이미 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법한 점퍼, 짙은 검정 색인데 허영게 누비지고 지릿한 얼룩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녹녹한 색깔의 바지, 언뜻 보면 검정양말로 보였을 발은 흰 각질이 부열게 일어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의상 컨셉을 극 반전 시키는 감색쓰레빠. 온통 추위를 막기 위해 걸친 누더기들과 달리 아직 윤이 나는 새것인 쓰레빠가 유난히 빛을 내며 이 의상의 컨셉이 참으로 공색함에서 나왔음을 토로한다.

나는 한참을 훑어보다 한 노숙인의 딱 진 머리와 덩수룩하게 자란 수염 사이에서 난감함과 마주했다. 사람에게 내비치는 것이 아닌, 마치 내 뒷벽 타이루를 쳐다 보는듯한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한참을 마주보았는데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던 눈동자에 슬쩍 귀찮음이 묻어난다. 너무 당황한 내가 웃었다. 누구네 집 타이루 짝에 붙어있을 법한 푸우 그림쳐림 참 예쁘게 웃었다. 염치없이 한없는 동정과 미안함을 보였다. 말을 건다면 가까이 가서 이야기 해 줄 수도 있다는 듯 한없이 착한 척도 보였다. 그러나 그 불안한 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않던 눈동자가 선택한 것은 냉소도, 분노도, 고마움도 아닌 단절이었다. 그는 한없이 귀찮은 듯 한참이 걸리게 몸뚱이를 돌려 누웠다.

도둑고양이들 얼굴이 밤송이처럼 보슬보슬 부풀어 올랐다. 길가의 나무들이 속내를 흰히 드러냈고, 움푹 파인 길모퉁이에 반질반질 얼음이 들어찼다. 코끝이 찡한 계절이 왔다. 칼 바람에 맞서야 하는 바야흐로 전쟁 같은 겨울이 왔다.

얼마 전 급하게 구하고 싶은 책이 있어 아는 사람만 찾아 간다는 헌책방에 갔다. 골라낸 책을 작가도, 연도도, 심지어 가격도 보지 않고 저울에 딱 하니 올려놓아 값을 부르는 할머니가 참 좋아 보여 농으로 조금만 더 얹어 달라고 하니 고기 근 마냥 300그램을 얹어 주셨다. 하루끼단편집. 덤이다. ㅎㅎ 하루끼가 300그램짜리 덤이 됐다.

하루끼에게는 미안하지만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며 나오려는데 냄비에 책을 가득 담은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술을 한잔 걸치셨는지 도통 무슨 소리지 모르게 아저씨가 황설수설 하고 할머니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며 천원자리 석장은 바닥에 던지고는 손을 휘휘 내젓는다.

언뜻 보아도 수키로는 뽕뽕한 보따리가 삼천원이라니 덤으로 얹어 줄 때와 달리 그 농에 인심이 참 옹팡지게 박하다.

책방을 나와 지하철을 타려고 걷다가 빈 냄마를 걸친 아저씨를 만났다. 쉴 새 없이 뭐라 중얼거리는 아저씨를 쫓아 나도 모르게 지

참 진부한 계절인사지만 올 겨울은 과하게 춤지 않았으면 한다. 다른 사람을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 시대에 찾아온 추운 계절이 무섭다.

지하철 노숙인 추태라는 사진이 매일 업데이트 된다. 노숙인 시신을 작업용 구루마에 실어 나르기도 거칠 것 없이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공원과 그를 지지하는 지하철 이용자들이 있다. 일하지 않고 먹는 자들에 대한 동경에 여념 없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았으니 추위에 떨건 배고픔에 주리던 당연하다고 한다. 참 많은 아버지를 길거리로 내몬 카드회사가 '아빠 힘내세요!!'를 외치고 인생을 즐기라는 경쟁사 광고는 금세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으로 화자 된다. 소비가 미덕이고, 도덕이고, 하나님님 시대에 노숙인은 구루마 위에 올려진 쓰레기와 다르지 않고 구역질 나는 놀림감에 지나지 않고 혐오해야 할 변종과 다르지 않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올 겨울이 과하게 춤지 않았으면 한다. 가끔 술이 과하면 전동휠체어에 몸을 누이고 노숙을 감행하는 야학식술들에게도, 노숙인들에게도, 추운 계절에 맞서야 하는 누구에게도 춤지 않았으면 한다.

제61호 2005 · 11

아화현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정립서관내 교육관 3층 (143-200)

해화동사무실 서울특별시 중로구 명륜동 1가 29-4번지 대부빌라 8차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전화 | 야학 (02) 446-9101 사무실 (02) 766-9101 전송 (02) 766-9102

홈페이지 <http://www.nodi.or.kr> 전자우편 [nodi@paran.com](mailto:nodi@paran.com)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이말찬, 김명학, 문종국, 이미정, 이정민, 최진영, 배덕민 편집디자인 디자인샘(2273-1571)

# 노들바람

노들바람 '노들'은 노란들관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관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관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발입니다.



## 이 야 기 구 성

### 노들바람

[노들바람을 여는 창] 02

### 우리안의 이야기-노들의 일상

각반소식 04

"노들 사람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명학 06

<특집> 열세번째 노들인의 밤 07

노들의 첫인상 - 상욱 14

"내 안의 노들과 노들 안의 나" - 정구 16

호식네 VS 현정네 18

동지 · 좌동엽 22

### 함께 하기

2005년 10월 후원자 명단 23



2004/12



**우리반 소식**

선동이형 술 줄이셔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동네 놀이터는 안 됩니다.  
 행사 평가 하다 보니 우리반이 수업시간 이외 일정에  
 상당히 무심했음이 밝혀짐.  
 당장 노들인의 밤이 걱정입니다.  
 좀 끈적끈적하게 뭉치고 사람냄새 나는  
 겨울나기 특훈에 돌입해야 할 듯.



**청솔반**

광섭이 형이 2주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명은 혈액순환장애. 면회 오라고 협박 중.  
 갈 사람이 있을랑가 모르겠소??? 평소애 잘하지.  
 중국이형 학교 좀 나오세요. 슬럼프에 바진 중국.  
 사랑애 빠진 기타 등등. 파이팅!!!!!! 뭘랑가모르겠소 들~~~~



### 불수레반 소식

11월 8일 화요일 2,3,4 교시에 불수레반 학생세미나 “가족”이란 주제로 했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에 신입 학생 성민음이 들어왔습니다. 한혜선, 이알찬, 심정구, 임동원, 조사랑, 교사들과 문명동 학생이 연구수업에 참가했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에 신입학생 공대식, 정수현이 들어왔습니다. 12월 2일에 이알찬, 홍송대, 정상욱, 한혜선 교사 마지막 연구수업에 참가했습니다. 연구수업 하느라고 교사, 학생, 수고 많이 했습니다. 12월 9일에 금요일 3,4교시에 학생세미나를 ‘장애인의 문화권’이란 주제로 했습니다. 12월 13일 부반장 최미은이 동생 초청으로 뉴질랜드에 갔습니다. 약 4개월 예정으로, 부디 유익하고 건강하게 다녀오길. 불수레반 학생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불수레반 파이팅!!!



### 한소리반

영주 홀릭~~~~~

정신 차려 수컷들아!!!

교실이 너무 좁아짐. 학생 폭주.

이러다가 한소리 1, 2반이 되어야 할 듯.

(언능들 알아서들 졸업하셔. --..+)

폭주하는 학생수를 위하여 학교하나 지어부러야 쓰겠습니다.

“노들 사람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 김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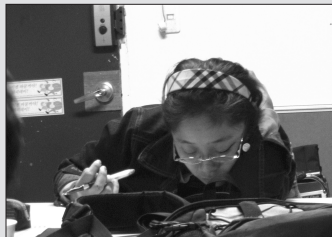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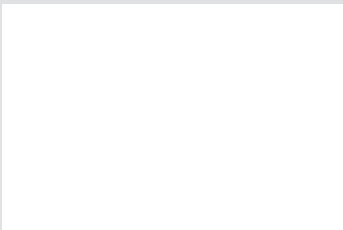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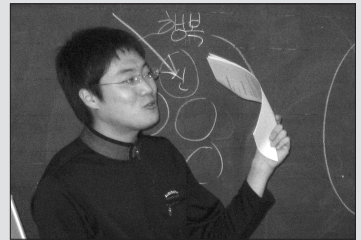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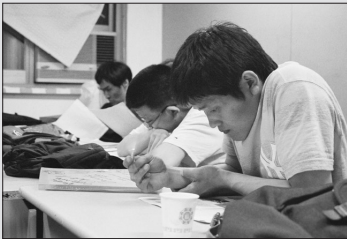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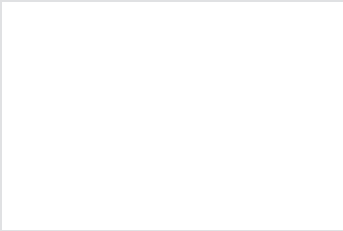
노들사람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 년 동안 우리 노들 사람들은 야학 현장에서 또 투쟁 현장에서 우리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서로 갈등과 위로와 성취감을 함께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얻은 것과 또 그 반면에 잃은 것들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노들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노들 사람들이 함께 함으로써 점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우리 노들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노들사람들 일년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엔 더욱 건강하길 바랍니다.

“인간해방 장애해방 그날까지  
우리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 “그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

일시 : 2006년 1월 14일(토), 오후 5시 | 장소 : 정립회관 강당





때로는 노들이 감당할 수 없어, 힘겹게 문을 두드린 누군가를 그냥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언제나 이 안의 고민들에 우선 몸뚱이를 내어주어야 했지만, 그들의 뒷모습을 결코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들이 더 치열하게 살아야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노들이, 새로운 교육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느샌가 교실이 되어버린 교무실, 그림에도 여전히 좁아터진 교실, 꼭 그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장애인이 생의 진도를 나가지 못한 채, 수인(囚人)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들이 받아 안을 수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제 노들은 조금씩 이 사회의 중심에  
우리의 교실을 세워내기 위한, 단 한 평의 공간을 더 내어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13년, 노들을 지켜준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이 부족한 교육에 기꺼이 희망을 걸어주셨던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제2, 제3의 노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의 터, 노들장애인야간학교와 함께해 주십시오.

**|사전 마당** 인사말, 연대의 말

**|본마당** 연극 “간혀버린 꿈, 거기가 시작이겠다.” | 수화 | 영상 “그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 | 전동댄스  
**|뒷마당** 초청공연, 어울림마당(뒷풀이)

**|초청공연** 박준, 노래공장, 클론

**|주변마당** 장애인권사진전 | 노들13년 사진전 | 물품판매





노들인의 밤 준비모임 중



연극반 연습중





촬영중.  
이번 노들인의 밤 준비과정은 모두 촬영되고 있음.  
기록이이 노들을 지배한다.



수화팀 팀장을 맡은 강현정



수화팀 연습 중



노들인의 밤 사상 최고의 무대를  
 야심차게 준비중인 좌동엽 사무국장.  
 상상하지 마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Coming soon!!

### “공부 좀 열심히 합시다.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저하된 것은 노들이라는 우리가 만든 바람이 우리에게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히, 열심히 쓰는 건 아니지만, 감정이 묻어있는 시간들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과 ‘고민’은 있되, ‘열정’ ‘의욕’ ‘실천’ 그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 φ \ D i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합시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를 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이곳에서의 시간은 어느 곳과 달리 느리고 성급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을 보면 나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든다.”

“당연히 배워야 할 시기, 그 기회를 빼앗긴 분들에게, 당연히 일해야 할 시기, 그 기회를 빼앗긴 분들에게, 노들의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기, 그 혼란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기반 위에서 새롭게 교육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활동을 조절을 하든, 배움의 시간을 조절을 하든, 학생분들이 스스로, **교육의 의미**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

“다른건 모르겠고  
수업시간은  
좀 지켜야 할 듯...”

“**활동과 학습**을 따로 볼  
것이 아니고, 활동도 필요하나 수  
업도 잘 지켜야 하는 가를 학생들  
과 잘 공유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그닥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열의가  
없는 것이, 단순 커리의 문제인  
지, 검시 이후에 삶에 관한 계획  
에 **뚜렷한 목표점**이 없  
기에 학습에 열의가 없는 것인  
지 잘 모르겠어요.”

교사수련회와 총학생회를 통해 촉발된 수업 사수의 문제가 2005년 노들의 목표였고  
고스란히 한 해를 정리하는 ‘노들인의 밤’ 제목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쏟아 놓았던 수업고민의 한마디 한마디를 늘어 놓아 본다.

우리는 2005년 얼마나 전전 했던가? 수업사수!!!!

“야학에서 수업을 하다보면, 사람  
들이 핑계가 많아요. ‘우울해서 안  
되요’, ‘수급권 때문에 속상해서  
안되요’ 이런 것들. 저는 그래도  
수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  
해요.”

“학습을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  
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  
과내에서는 부족하다. 그런 것  
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세미나**  
**가 일회적이어서 한계**  
**가 있다.**”

## 못하겠다. 글쓰기

R찬이 형이 글을 써 내란다. 별로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지금껏 살아오면서 정말 못하겠던 게 몇 가지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술자리에서 일찍 나오기, 술잔 앞에 두고 안마시기, 그리고 이 글쓰기이다. 대학 와서 리포트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이후론 일기도 한번 안 썼는데……. 그러나 어쩔 수가 없다. 신입교사 주제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π, π, π

## 노들의 첫인상

처음 노들을 알게 된 건, 2000년 장애인 집회에서였다. 박경석 교장샘의 신자유주의 속에서 차별받고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장애인에 대한 발언을 듣고, 그리고 지하철을 막고, 버스를 점거하며 투쟁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가졌던 장애인 운동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 한번의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를 찾으려 했고, 협조와 부탁의 방식이 아니라 치열하고 급진적인 투쟁으로 쟁취해 나갔다. 장애인만의 문제를 바꾸는 운동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비인간적인 원리를 인간적인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려는 혁명적인 운동인 것 같았다. 그 운동에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노들야학을 가슴에 품어왔고, 약 4년이 지나서야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다.



## 노들에 입성하다.

외부에서 상상만 하던 야학의 실제 모습은 생각도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 온 몸에 사슬을 묶고 힘차게 몸싸움을 하시던 학생들은 공부보다 술자리를 좋아했고 수업시간엔 치열하게 수업하는 교사들과 싸우고 있었다. 장애해방을 위해 자신의 일상을 쪼개어 야학에 올라오는 교사들은 학생들과 숙제 안한다고 싸우고, 공부 안한다고 화를 내고, 술을 많이 마신다고 잔소리를 했다. 술을 한번 마셨다 하면 새벽까지는 기본이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곤 했다. 그리고 이동권 투쟁, 교육권 투쟁 등 대외적으로 보이던 막연한 문제만이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의 여러 고민과 문제들, 야학 내에서의 수업에 관한 문제와 고민 등, 내가 알지 못하던 많은 고민들과 다양한 생각들이 야학에 공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야학에 온지 이제 90일 정도 밖에 안 되지만 확실히 느껴지는 것은 어쨌든 간에 야학은 너무 좋은 공간이고, 야학인들은 모두 재미있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이 생각난다. 물이 가득한 항아리를 채운 것은 처음에 떨어진 물방울도 아니고 마지막에 떨어진 물방울도 아니라고 한다.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꾸준한 반복되어 이어져온 물방울의 떨어짐이, 그 행위가 항아리를 가득채운 것이라 한다. 노들도 그런 공간인 것 같다. 노들을 거쳐 간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 노들인의 계속된 활동과 노력이 지금의 노들야학이라는 멋진 공간을 만들어낸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노력들이 지금의 노들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하게 해줄 것이며 나아가 사회를 바꾸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힘 있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시장의 역사가 아닌 더 정의롭고, 더 인간적인, 더 평등한 인간해방의 역사를 노들에서 만들고 싶다.



# 정규형



\* 시간에 쫓겨 정리되지 않은 생각의 단편들 - "내 안의 노들과 노들 안의 나"

#1.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운명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우리의 운명이 시작되는 것인지 잘 구분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짧게는 몇 개월간의 아르바이트들이 그러했고, 길게는 친구이자 후배인 녀석을 도와준답시고 덜컥 들어갔던 노숙인 쉼터에서의 3년 간의 경험이 또한 그러했다. 아 그리고 고 3, 대학입시 전기에 떨어지고 갑작스런 결정으로 본 후기 시험에 합격하여 다니게 된 대학이 대표적인 경우이다.(당시엔 전기와 후기가 나뉘어 있었다. 혹 이것으로 연령대를 계산하는 사람은 없길... -.-;) 이 외의 많은 것들이 마치 필연처럼 내 삶과 한 올 한 올 이어져 내 존재를 이루고 있지만 그 중 어떤 것들이 처음부터 간절한 바람이나 충분한 이해 가운데 시작한 것이 있었는지... 이 중에서 무엇을 우연이라 부르고, 무엇을 필연이라 부를까...

#2.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다만 이제 알게 된 것은 구분하는데 있어선 시간이란 녀석이 나보다 훨씬 전문가라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굳이 애써서 처음부터 이리 저리 갈라 놓을 필요는 없는 듯 싶다. 대신 이러한 경험 속에 예전과 달리 하나 변화된 것이 있다면 새로운 낯설음을 대할 때 묘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만남 안에서 서로간에 어떤 채워짐이 있을까'라는 호기심과 기대는 나로 하여금 세상과 사람들을 대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말이 내성적인 나에게 있어 이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3.

이젠 낙엽도 다 떨어지고 눈이 오는 것이 비가 오는 것보다 익숙한 계절로 접어들었는데, 이제 와서 때늦은 사색이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또 다른 하나의 만남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누군가 우연히 그 모습을 느끼기라도 했는지 꺼내어 놓으라고 옆구리를 쿡 찌른다. 그 찌른 손가락의 주인공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자신의 급박함(노들바람을 발간해야 하는데 글이 없다는...)을 해소해줄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열심히 누르는 가운데 내가 있었겠지만, 내겐 다르게 다가온 것이다. 이것도 우연인가...

#4.

그렇다. 올 초 찬바람이 불 때 처음으로 노들이란 곳에 올라왔다. 한 반 년 정도 신입교사로 지내고 2학기부터는 직접 학생들 앞에 서게 된 정교사이다. 학기로는 두 학기를 함께 보냈지만 아직 일 년을 채우진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 벌써(?) 이 노들이란 녀석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 있는 것이다. ^^; 이 노들과의 만남 속에서 난 노들의 어떤 부분을 채우고 있으며, 노들은 나의 어떤 부분을 채우고 있는지를...

#5.

‘처음 만남은... 음...’ 처음엔, 나라는 사람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곳 저 곳을 찾아보던 중 예전부터 잘 알던 후배와 연결이 되어 이 노들에 오게 되었다. 비록 찾고자 해서 만나게 된 것이긴 하지만 야학이란 곳은 아직 내게 낯선 곳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그건 낯설음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야학이란 공간도 내겐 낯선 곳이었지만 그래도 그건 내가 알고서 찾아간 것이니 준비된 낯설음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막상 찾아간 노들엔 또 다른 낯설음이 준비되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하... 여기서 잠깐 갈등... 만일 예전의 나였다면 내게 맞는 다른 곳을 찾아보려 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앞에서 말했듯이 새롭게 만나는 우연이 얼마든지 인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노들이라는 곳에 머물러 보기로 결정했다.

#6.

지금은 노들이라는 공간 안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노들이 품고자 하는 공간에도 많이 익숙해진 듯 싶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아직 어색함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엔 처음의 낯설음들이 조금씩 익숙함으로 바뀌어 갔었던 것 같으나 여기에선 낯설음이 조금씩 줄어든 그 남아 있는 낯설음이 주는 무게감엔 별로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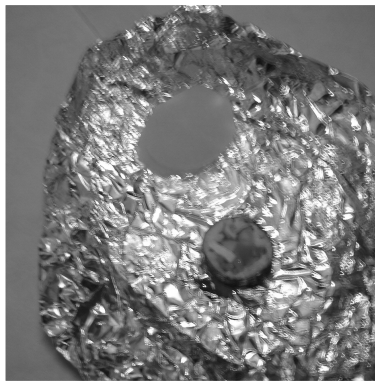
#7.

‘왜일까...?’ 그 무게감이 그냥 생긴 것은 아닐 것이기에 지금 난 조금 복잡한 고민에 빠져 있다. 그건 아마도 내가 노들이라는 곳에 속하기 위해선 다만 노들이 제공하는 공간에 들어가 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다. ‘노들은 날 얼마나 품을 수 있으며, 또 난 얼마나 노들을 품을 수 있을까...?’ 아마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듯 싶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애정이다. 다만 정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그런 애정 말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애정을 내가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아직 안개에 덮인 앞으로의 미래에 불안해 하기보다는 차분히 기대해 보련다. 참된 만남에선 늘 서로를 위한 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현장취재〉

# 호식네 VS 현정네

호식이 형이 집 근처 5분거리 쯤으로 분가(?)했다.  
체험홀 생활을 접고 집을 구한 현정이는 독섬역 근처에 집을 풀었다.  
누구나 분가를 꿈꾸는 이 시점 그들의 집구석이 궁금하다.



궁상맞은 총각살림



널찍한 집

집에서 나오게 된 동기는?

형을 피하려고 했다. 맨날 때리고 싸우는 통에...

집이 혼자 살기엔 너무 넓다.

혹시 알아? 나두 장가 갈지...  
(헉!!!! - -;; 그런 속셈이...)

세놓을 생각은 없나?

엄마가 여자 아니면 절대 불가란다.

집에서 주로 하는 일은?

원래 있던 집이 걸어서 5분거리라 밥은 집에 가서 먹고  
여기서는 대개 컴퓨터 하고 자고 영화보고 그런다.

나와 사니까 좋수?

참견이 없어서 좋다.

집에 다녀간 사람은?

기동, 선동, 명동, 이동엽

뭘했는가?

... (밝힐 수 없다. 완강히 저항함.)

앞으로 계획은?

돈더 모아서 반지하 탈출하는거.  
지상으로 좀 올라 가자.



동거인 미소와 '망치', '희망' 과 함께



미소랑 멍멍이 둘이랑 같이 사는데 어떨수?

혼자도 좋지만 같이 살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서로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  
개들은 문제 없다.

집 나오니까 좋수?

엄마가 챙겨주는 밥 못 먹는 것 빼고는 좋다.  
필요한 물건에 돈 나가는 것이 좀 아깝기는 하다.

앞으로 계획은?

죽 이렇게 살고 싶은 데 돈이 없어서 내년이 불안 하다.



## 동지



‘ 좌 동 엽 ’ 노 들 장 애 인 야 간 학 교 사 무 국 장 이 다 .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년차 교사이고, 32살 먹은 노총각이고, 전도를 하기는 하시는지 의심스러운 전도사이고, 월급 65만원 짜리 노동자이고, 그럼에도 관리자이고, 고용주님의 심복이다. 가리봉 전세방. 그것도 동생 지분이 절반인 단칸방을 가지고도 여전히 결혼을 꿈꾸고, 구닥다리 옷 한 벌 사 입지 않으면서 로망을 꿈꾸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

‘좌동엽’ 국어사전에는 없다. 그럼에도 노들에서 ‘좌동엽’은 명사로, 분주한 동사로, 참 실없는 형용사로 쓰인다. ‘좌동엽스럽다.’, ‘좌동엽처럼’, ‘좌동엽 만큼’ 기타 등등

사실 그를 잘 모른다. 어떤 때 그는 그가 믿는 다는 하나님만큼이나 먼 사람이고 어떤 때 그는 술 취한 우리 몸뚱이를 집에 누여주는 근접한 사이다. 근접하다가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한동안 동엽이 형이 힘든 일을 겪던 시절 도움 준다고 설쳤던 기억이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항 속에 빠진 물고기를 건지겠다는 아이만큼 웃기는 짓이었다.

좌동엽의 꿈은 유라시아대륙처럼 넓고 몽골사막처럼 복잡하다. 그리고, 태평양을 유영하는 고래처럼 자유롭다. 도대체 어디쯤 있을지 모를 동엽이 형이 불쑥 반짝이는 검정색 비늘을 내 비추기만을 기다려야 할 뿐.....?

어제까지만 해도 연극을 가지고 이래저래 판을 키우시는 동엽이 형에게 궁시령궁시령 거렸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 멋들어진 노래들에서 밤샘 작업의 흔적이 묻어 난다. 참 많이 고심하고 공들여 만들었을 노래들을 가지고 어디서 났는지 에너지 덩어리를 들고 와서 노들인의 밤 준비를 시작한다.

...

32살 끊임없이 선택하고 살아온 그냥 ‘좌동엽’스러움을 믿어본다.

10월 후원

| 지로후원 |

(주)리폼시스템, 윤성로, 이정실, 채원경, 양원일

| 은행이체 후원 |

행동하는의사회, 이마트단체지원, 강일성, 고명선, 권현실, 김기형, 김동호, 김미선, 김민정, 김보매, 김소희, 김용철, 박경선, 박경순, 박근성, 박성희, 배상근, 배태섭, 서금석, 서정희, 손우정, 신동길, 안성희, 안수희, 오선실, 우복남, 유별라, 유정옥, 윤종배, 은봉주, 이민규, 이상란, 이영미, 이지은, 이지은, 이창수, 이현숙, 전운우, 정진용, 현정훈, 홍영선

| CMS 후원 |

강경완, 강광숙, 강병완, 강정자, 강주성, 강현옥, 고아라, 고양숙, 고제현, 구현아, 권순성, 권태국, 김경민, 김기동, 김기룡, 김나미, 김덕훈, 김도현, 김동효, 김동희, 김명학, 김문호, 김미애, 김범식, 김병기, 김비호, 김선옥, 김순주, 김신자, 김애경, 김연선, 김연희, 김영희, 김용수, 김우혁, 김우선, 김은미, 김은숙, 김은천, 김재경, 김정숙, 김정연, 김지수, 김창보, 김태인, 김혜옥, 나선용, 노유리, 노혜련, 류승화, 류정숙, 마미주, 문예진, 민점식, 박경혜, 박경화, 박누리, 박민영, 박상일, 박시백, 박은정, 박장근, 백미화, 백재선, 서명아, 서미선, 신복순, 신성룡, 신승애, 신윤철, 신현훈, 심귀황, 심미경, 심한권, 안문필, 안민희, 안소진, 안희옥, 양현준, 엇진, 엄기양, 여준민, 옥샘, 원윤아, 윤두선, 윤정미, 윤희, 이경희, 이미랑, 이미영, 이미자, 이석원, 이순웅, 이승주, 이승현, 이알찬, 이은숙, 이은정, 이재령, 이정인, 이제현, 이종실, 이주옥, 이지은, 이지혜, 이철우, 이필규, 이해창, 이현숙, 이현진, 이홍규, 이홍호, 이희국, 임춘학, 임혜숙, 장선정, 장영숙, 장효정, 전경옥, 전권세, 전민숙, 정영란, 정영석, 정용균, 정진수, 정희덕, 조미정, 조성준, 조성진, 조연희, 조영균, 조은경, 조자영, 조현숙, 좌동엽, 좌미경, 좌혜경, 차한선, 천종민, 최경숙, 최경일, 최동호, 최미란, 최선희, 최우영, 최정숙, 추경미, 하성우, 한남희, 한명숙, 한지선, 한지훈, 한혜선, 허건, 허진태, 허창, 홍갑출, 홍은선, 홍은진, 홍진표, 황성윤, 황혜진

■ 국민은행 중구지역 지점 모금함

남산타운지점, 시청역지점, 서린동지점, 종로3가지점, 중부지점, 서소문로지점, 창신동지점에서 모금된 후원금을 입금시켜 주셨습니다.

노들야학을 후원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모집

장애 인구의 50%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국민으로 누렸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마저 누리지 못해 척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은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http://www.nodl.or.kr>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정립회관 교육관 3층

- 교사지원 문의 02-766-9101(사무실)
- 02-446-9101(야학)
- 016-9480-0722(교육부 차장)
- [nodl@paran.com](mailto:nodl@paran.com)

## 노들장애인야간학교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갈 후원인을 모집합니다!



### ●●● CMS 후원 가입 안내

CMS 후원은 후원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새로운 후원방식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출금에 필요한 정보(출금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저희 야학(담당자)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766-9101 / 011-9194-7713(홍은진))

### ●●● 은행 자동이체 신청 안내

통장,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은행의 자동이체용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 계좌 번호 ]

- 국민은행 835-21-0312-815
- 기업은행 133-025369-02-019
- 농협 029-12-200545
- 신한은행 353-02-276437
- 외환은행 170-19-30457-4
- 우리은행 470-07-035448
- 조흥은행 904-04-255208
- 하나은행 757-810128-43007

\* 지로 번호 : 7648533

전구좌 예금주 : 박경석